강성조선의 미래와 재간둥이들







평 양 출 판 사

강성조선의 미래와 재간둥이들

주체112(2023). 5.

예로부터 꽃을 가꾸는것은 1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는것은 10년을 내다보며 후대들을 키우는것은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전도, 미래가 좌우된다.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우리의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될것이라고 하시며 새세대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는분은 바로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이시다.

하늘도 감복시킬 그이의 미래사랑,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명당자리들마다에는 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들이 그림같이 일떠서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학생소년들에게만은 철따라 새 교복과 각종 학용품, 책가방들이 가슴가득 안겨지고있다.

이렇듯 훌륭하고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속에서 공화국의 아이들은 가슴속에 품은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신동이, 재간둥이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이들속에는 과학기술강국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만만한 포부와 열정을 안고 학습을 열심히 하여 학과경연들마다에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한 최우등생도 있고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 모범독서가도 있으며 10대에 국가대표선수로 전도가 양양한 꼬마체육명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뛰여난 예술적감각과 기량을 소유한것으로 하여 TV무대에 자주 출연하여 사람들과 친숙해진 예술신동, 미술신동들도 있다.

편집부는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강성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수많은 재간둥이들가운데서 일부를 취재하여 소개한다.

차 례



뛰여난 수학수재

- 평양제1중학교 초급 2학년 4반 최자연 -

지능이 높은 전국의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특출한 인재들로 전망성있게 키워내는 수재양성기지인 평양제1중학교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여러 과목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보기 드문 수재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초급 2학년 4반 최자연학생도 있다.

20대에 박사가 된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탁아소시절부터 자연이는 기억력과 관찰력이 남달리 비상하여 배워주는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대로 재현하군 하였으며 항상 엉뚱한 질문을 들이대군 하여 보육원들을 난감하게 만들군 하였다.

글을 읽기 시작해서부터는 장난기심한 또래아이들과 달리 늘 책속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다나니 동네에서 《그 아버지에 그 아들》, 《꼬마박사》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고 한다.

그를 담임한 리은심교원의 말에 의하면 수학과목에 류다른 애착을 가진 자연이는 수학시간이면 선생님의 설명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뛰여난 착상과 응용으로 어려운 수학문제들을 재치있게 풀어 선생님들과 동무들을 깜짝 놀래운다고 한다.

자연이는 한주에 1~2차 진행되는 여러 과목들에 대한 학과경연마다에서 항상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학년 최우수생, 상식경연, 글짓기발표모임 등에서 단연 으뜸, 례절이 밝고 품행이 단정하여 학급학생들속에서도 신망이 높은 분단위원장이라고 한다.

그뿐아니라 자연이는 소학교시절부터 국가적명절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밝고 정중히 꾸리기 위해 많은 꽃관목들을 마련하여 기증하고있다.

공부도 잘하고 도덕도 밝으며 좋은일하기운동에도 항상 앞장에 서있는 최자연학생은 늘 이렇게 말하군 한다.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아버지처럼 과학과 기술로 조국을 받드는 박사가 되겠습니다.》



학과경연마다에서 항상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학년 최우수생인 최자연학생의 꿈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아버지처럼 박사가 되는것이다.







례절이 밝고 품행이 단정하여 학급학생들 속에서 신망이 높은 분단위원장인 최자연학생은 좋은일하기운동에도 항상 앞장에 서있는 모범 소년단원이다.





꿈많은 소녀시인

- 김형직사범대학부속 평천구역 미래소학교 5학년 11반 심다예 -



심다예학생은 2023년 《지혜동이 신동이들의 설맞이》를 비롯하여 유치원시절부터 옛말할아버지가 출연하는 TV아동예술무대에서 소개자 겸 꼬마가수로 이름을 날리군 하여 또래아이들속에서는 은근히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시를 읊을 때면 꼬마시인, 노래를 부를 때면 꾀꼴새, 피아노와 타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물찬 제비 등 다섯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애칭을 가진 다예는 다재다능한 꼬마재간둥이로 불리운다.

주체 111 (2022)년 2월 25일

매일 매일 꾸고싶은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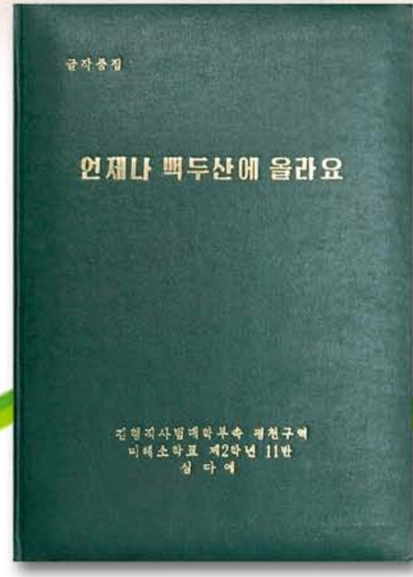
나는 누구보다 꿈을 많이 꾼다.
아침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금시라도 꿈이 사라져버릴가 얼른 엄마에게 꿈이야기를 해주는것이 어느덧 나의 일과로 되여버렸다.
지난해 9월의 그날도 나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뵙고 사랑의 품에 안겨 어쩔줄 몰라하는 행복의 꿈을… 바로 그날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줄은 정말 몰랐다. 공화국창건 73돐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장에서 글쎄 내가 해님처럼 밝게 웃으시는 아버지원수님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올줄이야…!
일생토록 잊지 못할 그날의 가슴벅찬 나의 마음을 동시 《변함없는 나의 꿈, 나의 소원》에 담았다.
그때부터 나는 꼬마시인이 되였다. 오늘 나는 꿈같은 행복을 또다시 받아안았다. 아니 글쎄 아버지원수님께서 내가 지은 글작품집 《언제나 백두산에 올라요》를 몸소 보아주시였다는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 몇번이고 내 손등을 꼬집어 보았다. 꿈은 아닌데…, 정말 꿈이 아닐가, 정말 꿈이면 깨지 말아다오…! 아버지원수님을 또다시 뵙고 싶다.
학습도 잘하고 글짓기도 잘한 크나큰 자랑을 안고 꿈에서라도 아버지원수님을 뵈옵고싶다.

-심다예학생의 일기중에서-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 4.15충성의 만경대창작상수상자인 분단위원장 심다예학생은 글작품집 《언제나 백두산에 올라요》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려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전문가들을 놀래운 미술신동

- 동대원구역 문신소학교 1학년 4반 리주강 -

지난해 7월 중국 료녕성 대련시에서는 《상봉, 겨울의 꿈, 미래》의 주제로 제8차 아시아어린이그림전시회가 진행되였다.

공화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17개 나라와 지역에서 보내온 200여점의 작품들이 출품된 전시회에서 공화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입상하여 조국의 명예를 떨치였다.

그들속에는 동대원구역 문신소학교 1학년 4반 리주강학생도 있다.

주강이의 뛰여난 그림재간은 창광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에 형성되였다.

20여년을 유치원의 미술소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꼬마재간둥이들을 키워낸 정영애교양원은 처음에 엄마손을 잡고 소조실에 발을 들여놓은 주강이를 며칠동안 관찰하고나서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 나이또래 총각애들의 웬만한 장난에 대해서도 끔쩍 안하던 그였지만 주강이의 세찬 장난기와 울뚝밸을 보고는 두손을 번쩍 들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무엇을 시켜도 싫다고 떼질을 하던 주강이가 그림그리기를 배우겠느냐는 어머니의 물음에는 매번 머리를 끄덕였다고 하니 교양원의 심중은 무거워졌다.

(내가 주강이를 너무 일면적으로만 관찰한것이 아닐가?)

마침내 결심을 내린 교양원은 주강이의 꽃잎같은 손에 그림종이와 크레용을 쥐여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잠시도 가만 앉아있지 못하던 주강이가 그야말로 《그림같이》 앉아서 그림의 세계에 온 정신을 파묻고있는것이 아닌가.

주강이의 그림솜씨는 나날이 늘어갔다.

그림 한장 그리는데 드는 시간도 한주일에서 며칠, 하루, 몇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교양원의 고심어린 노력은 끝내 빛을 보았다.

주강이는 전국적인 소묘축전에서 우승하였으며 뛰여난 재능을 가진 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고 그림을 제일먼저 그려 그림그리는 속도가 정말 놀랍다는 심사자들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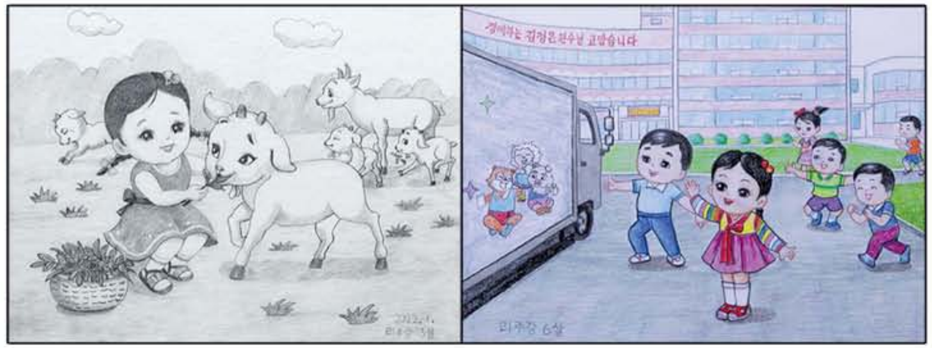
앞으로 무엇을 하고싶은가고 묻는 질문에 나어린 주강이는 주저없이 《난 내가 사는 마을과 거리, 학교를 누구나 부러워하게 멋지게 설계하겠습니다.》라고 씩 웃으며 대답했다.







제8차 아시아어린이그림전시회에 입선된 리주강어린이의 작품 《꿈동산 찾아가요》



창광유치원시절에 리주강어린이가 그린 작품들





훌륭한 건축가가 되려는 미술신동 리주강학생, 오늘도 그는 멋진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쳐가고있다.









만경대구역 금성2동 13인민반 사람들은 저녁시간을 은근히 기다리군 한다.

보람찬 하루일을 끝내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쯤이면 어김없이 창문너머로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가야금소리를 듣군 하는데 그럴 때면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짐을 금할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유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이 바로 금성제1중학교 고급 1학년 3반 신윤경학생이다.

윤경이는 온 인민반사람들이 사랑하는 재간둥이이다.

윤경이가 세살 나던 해 어느 명절날 모란봉에 가족들놀이를 나갔던 그의 부모들은 어느새인가 눈앞에서 없어진 딸을 찾아 오랜 시간을 헤매이다가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 한가운데서 장고치는 사람에게 얼이 빠져있는 그를 겨우 발견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군관, 어머니는 로동자, 가정적배경으로 보아도 윤경이의 집안은 예술부문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인지 부모들은 남달리 음악을 좋아하는 딸의 취미를 호기심정도로만 여기였고 그후 가야금을 배우고싶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딸자식이 이토록 훌륭한 예술신동으로 자라리라는것을 상상도 못했다.

만경대구역 칠골소학교에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윤경이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10살에는 제13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소학반부류 가야금종목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였다.

소학교를 졸업하면서 희망에 따라 금성제1중학교에 입학한 윤경이는 그리도 소원하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재능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치게 되였다.

오랜 력사를 가진 민족악기인 가야금에 특별한 애착을 안고 재능있는 가야금후비들을 수많이 키워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박경희 가야금소조 교원은 윤경이에게서 가야금독주가로서의 자질과 예술적기량을 발견하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였다.

음감이 밝고 혼자서도 장고를 메고 장단치기를 좋아하며 집중력과 지구력이 높은 윤경이의 발전속도는 참으로 놀라웠다.

이 나날 윤경이는 롱현과 같은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들을 터득하고 세련시키였으며 높은 연주기교로 민족악기의 고유한 특색을 훌륭히 살려내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신윤경학생은 오늘도 공연무대들에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가야금의 선률에 담아 한껏 펼쳐보이고있다.





등록번호

제13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입상증서

소학반 부류 가야금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쟁취하였음

이 름: 신윤경

단위명: 평양시 만경대구역 철봉소학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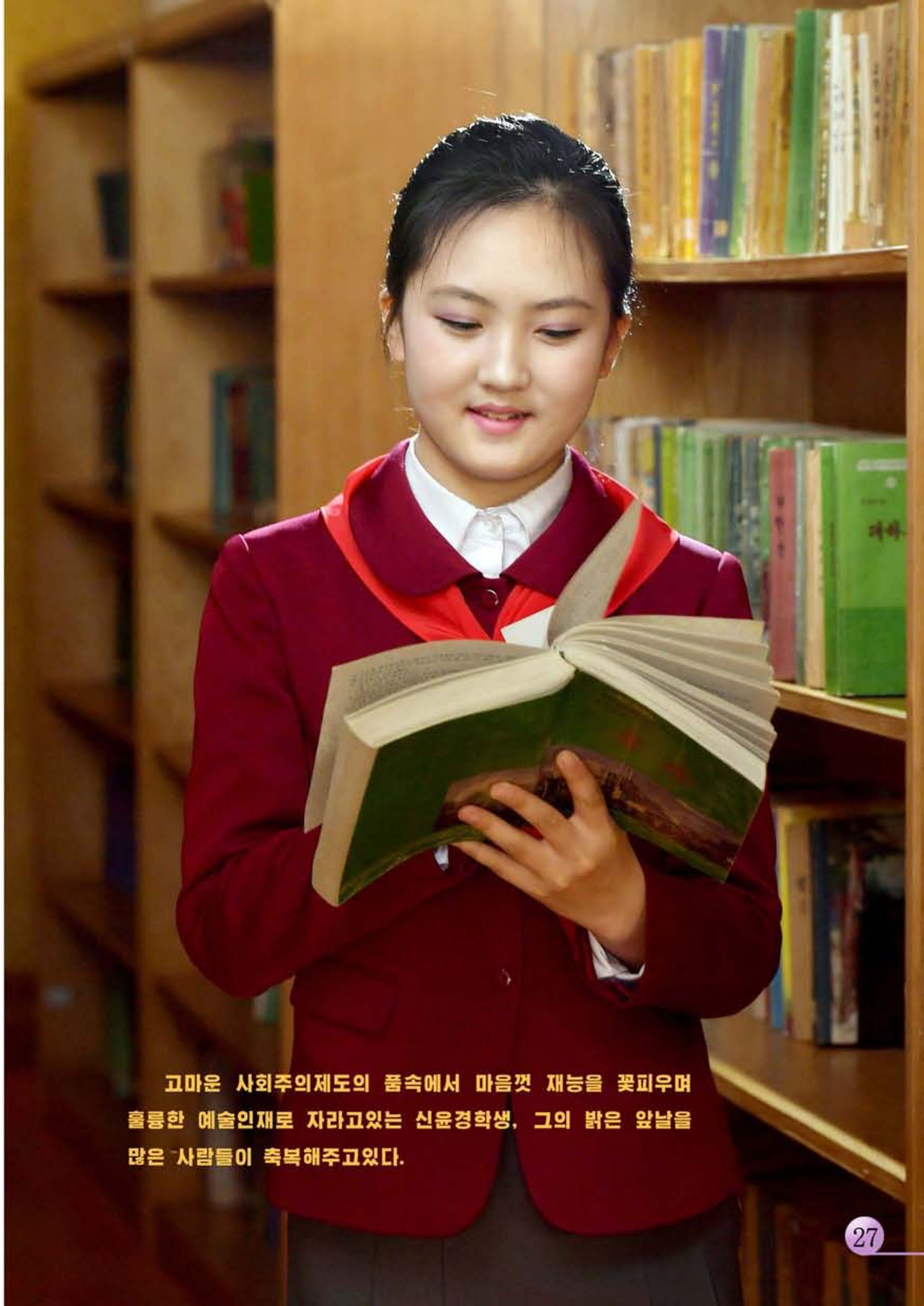
주체107(2018)년 10월 5일

신윤경학생이 제13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소학반부류 가야금종목에서 받은 최우수상 입상증서와 메달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며 훌륭한 예술인재로 자라고있는 신윤경학생, 그의 밝은 앞날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있다.



앞날이 기대되는 탁구소녀

- 조선체육대학 리애령 -

평소에는 말이 없고 웃음조차 조용히 짓군 하는 소녀, 하지만 일단 탁구채를 쥐기만 하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온몸에서 정열이 뿜어져나오는 그는 금성제2중학교 초급반을 졸업하고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한 리애령학생이다.

그가 탁구를 시작하기까지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선교구역 남신소학교에 입학한 애령이는 남달리 머리가 좋아 공부에서 늘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짬만 있으면 딸에게 물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싶으냐고.

애령이의 대답은 매번 달랐다.

과학자, 작가, 건축가, 의학자…

그러던 어느날 저녁 TV를 보던 애령이의 눈에는 제33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녀자개인단식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는 박영순선수의 모습이 비껴들었다.

수십년세월이 흘렀건만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세계탁구녀왕》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간직된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박영순, 그날 애령이에게는 진짜목표가 생겼다.

여느때없이 부모앞에 정숙하게 나선 7살 난 애령이는 《아버지, 어머니, 난 탁구선수가 되겠어요.》

일단 목표가 선정되자 그는 쉬지 않고 달렸다.

그의 탁구기술은 평양학생소년궁전 탁구소조에서 체계적인 전문훈련을 받으면서부터 더욱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매일 소조교원이 제시한 훈련과제의 2배이상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쳐 쓰러지는한이 있더라도 집에 돌아갈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이악성과 열정적인 노력에 탄복한 안태호소조교원은 애령이의 훈련지도에 온갖 지혜를 다 쏟아부었다.

결과 애령이는 2020년에 진행된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탁구녀자개인종목에서 1등을 쟁취하였으며 여러 경기들마다에서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혜성같이 나타난 탁구신동》으로 불리웠다.

육체적조건도, 탁구기술도 나무랄데 없는 리애령학생, 그는 자그마한 탁구공에 조국의 존엄이 무겁게 실려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오늘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 희망의 상상봉에로 쉬임없이 달려가고있다.


K Ca Cd In
Rb Sr Hg Tl
Dy
Cf


3
2





감탄을 자아낸 꼬마기마수

- 보통강구역 류경소학교 4학년 3반 김림평 -

삑-

출발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맵짜게 울렸다.

2022년 3.8국제부녀절기념 승마경기 작은말구보경기 결승경기에 나선 65번선수.

침착하면서도 당돌하게 경기장주로를 돌아 종을 울리며 결승의 꽃대문에 들어서는 꼬마기마수의 모습을 사람들은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있다.

그가 바로 보통강구역 류경소학교 4학년 3반 김림평학생이다.

벌차고 장난기심한 또래아이들에 비해 류달리 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소유한 림평이는 어느날 승마경기가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승마를 배우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라댔다.

뜬금없는 어린 아들의 제의에 미림승마구락부에 데려가기는 했지만 부모들은 아들이 며칠어간에 그처럼 빨리 기마술을 터득하리라고는, 더우기 70여명의 입선자들을 물리치고 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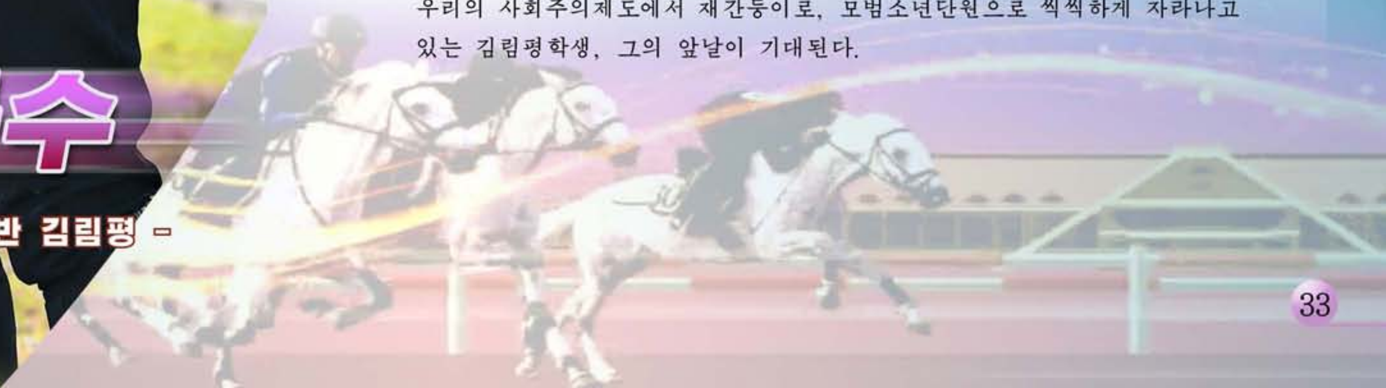
준결승경기에서 비록 남보다 출발은 늦었어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포니》말을 능숙하게 조종하며 좁은 주로를 바람같이 달릴 때부터 관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림평이가 결승의 마당에서 마침내 우승하는 모습이 TV화면으로 비쳐질 때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꼬마기마수 림평이의 재간은 이뿐이 아니다.

학교에서 진행되군 하는 노래모임에서 흥겨운 가락에 맞춰 타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전문가 못지 않은 그의 재간에 교직원, 학생모두가 탄성을 올리군 한다.

로은경담임교원은 남다른 재간둥이인 림평이야말로 학급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평범한 로동자들인 림평이의 부모들은 우리 제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아들이 지금처럼 구김살없이 훌륭하게 자라날수 있겠는가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군 한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누구이든 자그마한 희망의 싹도 소중히 여기고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재간둥이로, 모범소년단원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김림평학생, 그의 앞날이 기대된다.




미림승마구락부
MI RIM RIDING CLUB







평범한 로동자들인 김림평학생의 부모들은 우리 제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아들이 남다른 재간둥이로 훌륭하게 자라날수 있겠는가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군 한다.



나래를 편 《갈매기소녀》

- 조선체육대학 구진아 -

《하나, 둘》, 《하나, 둘》…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훈련장에서는 생기발랄한 소녀들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률동이 련이어 펼쳐진다.

그속에 키가 쭉 빠지고 탄력있는 몸매를 가진 한 소녀의 모습이 눈에 띄였다.

그가 바로 해마다 진행하는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소학교부문 예술체조경기에서 언제나 패권을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전문가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구진아학생이다.

어려서부터 운동감각이 뛰여났던 그의 천성적인 재능과 소질을 알아본것은 평천구역 봉남소학교의 한윤미 예술체조소조 교원이였다.

입학생들중에서 진아의 체격과 용모가 예술체조선수로서는 적격이라는것을 알아본 윤미선생은 그를 전도유망한 체육인으로 키울것을 결심하였다.

우수한 선수후비를 선발하였다고 하여 저절로 훌륭한 선수가 되는것은 아니다.

윤미선생은 기초훈련단계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진아에게 다른 소조생들보다 2~3배로 훈련강도를 높이며 남다른 노력과 정열을 기울이였다.

그의 기량은 나날이 늘어났고 몇달만에는 벌써 상급반소조원들과도 견줄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1년후에는 훌륭한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소학교 2학년부터 경기에 출전한 그는 여러 종목들에서 련속 4번이나 우승을 쟁취하였다.

해가 갈수록 그의 자그마한 가슴우에 우승의 메달들이 덧쌓여갔다.

《마흔이 넘어 본 딸이여서 그저 애지중지하기만 하던 우리 딸을 이렇게 모두가 다 아는 재간둥이로 키워준 선생님들과 나라의 은덕을 어찌 다 갚을수 있겠습니까.》

딸자식을 훌륭히 키워준 은혜로운 품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토로하며 그의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바다를 날으는 해연과도 같은 황홀한 기교를 펼쳐 《갈매기소녀》라 불리우는 구진아학생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희망대로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하였다.








2중영예의 붉은기
평천구역 봉남소학교



애칭이 많은 바둑명수

- 중구역 류성소학교 4학년 2반 고려경 -





공화국에서는 지능체육의 왕으로 불리우는 바둑을 중시하고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결과 많은 바둑신동들이 자라나고있다.

그들가운데는 중구역 류성소학교 4학년 2반 고려경학생도 있다.

려경이는 3살적부터 놀라운 기억력과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력,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것으로 하여 탁아소보육원들의 남다른 관심속에서 자랐다고 한다.

수많은 바둑신동들을 키워내여 명성이 자자한 중구역 교구유치원의 고성실 교양원은 려경이의 훌륭한 심리적자질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바둑을 배워주기 시작하였다.

아동심리를 리용하여 바둑의 유래와 일화들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교양원 선생님의 이야기에 심취된 려경이는 차츰 바둑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자그마한 손에 검은돌과 흰돌을 쥐고 바둑의 기초와 묘리들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한지 몇달도 안되여 그는 전국어린이바둑경기 유치원부류에서 우승하였으며 맞다드는 모든 상대들을 가볍게 물리치군 하였다.

전국어린이바둑경기 소학교부류에 참가하여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배포유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그의 모습을 본 많은 바둑전문가들은 그가 소유한 바둑수가 아마츄어 5～6단과 맞먹는 높은 실력이라고 하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비상한 두뇌와 남다른 열정을 지닌 려경이는 《바둑소녀》라는 친구들의 애칭에 만족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열성독서가, 상식박사로, 동네에서는 피아노, 손풍금, 수영, 탁구 등 많은 재간을 소유한 다재다능한 꼬마인재로 불리우는 고려경학생은 이제 크면 교원이 되여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것이 자기의 희망이라고 한다.









어린 《날파람》들

- 평천구역 간성초급중학교 태권도소조원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학생소년들의 여러 경연, 경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는 학교로 소문이 자자한 평천구역 간성초급중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태권도자랑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지난 기간 교수교양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과 동시에 과외소조운영을 활발히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학생들속에서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깃들어있는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에 적지 않은 품을 들이고있다.

우선 학생들모두가 태권도모국의 한 성원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학습을 잘해나가도록 대중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건장한 체력과 강의한 의지 그리고 태권도에 대한 남다른 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태권도소조에 인입시키고 소조운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태권도학원을 졸업하고 전문기술을 소유한 태권도소조의 교원들은 소조생들을 훌륭한 태권도선수후비로 키우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고있다.

매 소조생들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훈련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훈련량과 강도를 부단히 변화시키면서 여러가지 기초기술을 익히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2가지이상의 특기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훈련을 조직진행하고있다.

결과 학교는 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단체틀경기와 단체맞서기경기에서 평시에 련마해온 다양한 경기전법과 전술을 적극 활용하여 해마다 우승의 영예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남다른 포부와 꿈을 간직한 태권도소조의 주장 리령대학생을 비롯하여 소조원들속에는 전문가들의 이목을 끄는 유능한 태권도선수후비들이 많다.

오늘도 소조원들은 우리 조국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쳐갈 앞날의 훌륭한 태권도선수로 자라날 크나큰 포부를 안고 피타는 노력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태권도

재능있는 무용가후비들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무용소조원들 -



학생소년들의 2023년 설맞이공연 《더 높이 울려라 행복의 노래》에서 동화무용 《곰동산과 토끼동산》을 무대에 올려 설맞이 꽃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한 꼬마무용수들을 보고싶어 우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았다.

덩덕궁 덕궁— 민속장단의 흥겹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나오는 곳이 바로 민속무용소조실이였다.

소조실에 들어서니 낯이 익은 꼬마무용수들이 물찬 제비들마냥 훈련복들을 가쯘하게 차려입고 장고소리에 맞춰 무용동작을 익혀가고있었다.

소조의 여러 련습실들에서는 각이한 년령의 뛰여난 소질을 가진 150여명의 학생들이 과외시간마다 무용훈련을 받고있다.

무용소조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예술부문의 대학졸업생들이며 예술단체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소조원들은 무용기초리론과 함께 예비동작, 걷기동작, 손동작, 발동작 등 여러 무용기초동작들을 습득한 후 무용기교동작들을 배우게 된다.

소조교원들이 무용교육에서 제일 품을 넣는 분야는 조선무용이다.

조선무용과 조선장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기초지식, 기교와 률동, 음악과 형상의 조화로운 통일, 안삼블능력 등 속성적인 무용기술교육을 받은 소조원들은 궁전예술공연활동을 통하여 그 어떤 민속무용작품도 능숙하게 형상할수 있는 재능있는 무용가후비들로 자라게 된다.

소조원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들에서 자기들이 련마한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현명주 무용소조 교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성장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식들이 재간둥이로 자라나니 정말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입니다.》

정녕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요람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우리의 학생들, 그들이 펼칠 내 조국의 미래는 그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사과풍년





해빛을 안고 별빛을 안고
붉게붉게 피여나거라
이 세상에 너희들보다
소중한것 더는 없단다
아 너희들은 조국의 미래여라

밝게 웃어라 곱게 피여라
아름다운 목란꽃처럼
내 조국을 받들어나갈
기둥으로 자라나거라
아 너희들은 조국의 미래여라

— 노래 《너희들은 조국의 미래여라》중에서 —





강성조선의 미래와 재간둥이들

글 권지혜

편집 김윤일, 권지혜

사진 김남철, 박주성 교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5월 29일
발 행	주체112(2023)년 5월 31일

ㄱ-1601ㄷ

훌륭하고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속에서 공화국의 아이들은 가슴속에 품은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신동이, 재간둥이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